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동금리로
내리는 인형리코
★고객은 주머니를 쥘수록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문의: 060-023-4000
국민은행

4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직설치원을 곁들리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우리 차문화의 지변화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0595)83-9665 / 83-3478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본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건너간다.
 (지도론)

법회 안내
 종로 경술실 (02)732-7613
 정가법회 매월 8·15일(음) 오후 8시
 수요일법회 매주 수 오후 4시
 토요일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미타사 (02)662-4736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 10시
 자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철야법회 매주 토 저녁 10시
 광주 민덕사 (062)652-4920
 연등법회 매월 1·3일(음) 오전 10시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오전 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 9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 7시
 문빈정사 (062)222-2202
 정가법회 매월 1일(음) 오전 10시
 인등법회 매월 7일(음)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1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 5시
 합동장년법회 매월 셋째주 일
 오전 10시
 관음사 (062)223-7666
 거사법회 매주 일 오후 7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 6시 1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지자암 포교당(0351)865-51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합동장년법회 매주 일 오후 5시
 진주 월경사 (0591)5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 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합동장년법회 매월 15일 오전 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람·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
 (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조·태 통합논의 진일보

특별교구·법인구성안등 거론...월주 총무원장 선암사 방문

조계종과 태고종은 통합될 수 있을까. 해묵은 논쟁이면서도 한국근대불교사상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터져나올 때마다 실현 가능성이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조계·태고종의 통합논제가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조계·태고 통합논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의 근저에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밀박침이 되고 있다. 첫째는 조계종 총회에서의 정후스님 발언, 조·태분규사찰 실무회의의 위원장인 정후스님은 지난 달 22일 조계종 제 118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실무회의의 성과를 보고하는 중에 "양 종단 대표가 만나 몇가지 합의를 이루었다"며 "조계종 중헌 9조 1항을 손질해 양 종단을 통합하되 현재까지의 태고종 승적을 인정해 주는 안"을 거론했다. 정후스님은 통합안 이외에도 △태고종을 조계종의 특별교구로 설정하는 안과 △89년 양 종단이 합의했던 법인

구성안 등을 덧붙여 언급했다. 정후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조계종의 대표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선암사를 방문해 이 또한 논의를 끝냈다. 둘째는 지난 16일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이 핵심측근인 총무부장 자일스님과 태고·조계 사찰분규중심위원장 이규범 법안행정위원장을 대동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것. 이 자리에서 서봉 총무원장은 "이제는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라 양 종단이 합쳐야 된다"며 통합에 대해 강조했고 월주 총무원장은 "연구해 볼만한 일이다. 만일 통합된다면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는 화엄사 진신사리 친견법회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에 내려온 월주 총무원장이 지난 달 23일 선암사를 방문, 경내를 둘러보고 대중스님들과 환담을 나눈 사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선암사 방문은 비



단식... (이경숙 기자)

법인대책위 구성
 조계종 118회 총회
 조계종 제118회 임시중앙총회는 지난 28일 '산하법인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 1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학원, 대각회 등 조계종 관련 법인에 대해 조사 등의 일을 담당할 법

국보 10% '안전 이상'

문체부 국감서 밝혀...훼손·도난예방대책 세워야

국보 10개종 한개포로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2백85점의 국보종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보(석조·목조 문화재)는 전체의 10%에 가까운 26점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26일 문화재관리국에

대해 국경감사에서 김진우 문화재관리국장(민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가 지정문화재 4백25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석조문화재 1백44점, 목조문화재 9점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국보는 26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관리소홀로 93년 이후 지금까지 불과 2년반 동안 모두 52건의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 9백9점의 중요 문화재가 분실했으나 3백25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성보관리의 무관심과 관련, 박종용의원은 "지난달 8월에 있었던 폭우로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경관이 누수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업무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표본"이라며 성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현대불교 창간 1주년 2대 기획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 애독자 사은 연속 법회"



대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
 한국불교 4대총림 방장스님들의 사자후, 미혹의 증생고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법담을 들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그간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습니다. 중요한 계절에 큰스님들의 사자후로 마음의 가난을 벗어나려는 친견 법회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차 : 영축총림 통도사 10월 14일(토) 월하 방장스님 친견
 △ 2차 : 해인총림 해인사 10월 28일(토) 해암 방장스님 친견
 △ 3차 : 덕숭총림 수덕사 11월 4일(토)

원담 방장스님 친견
 △ 4차 : 조계총림 송광사 11월 18일(토) 승찬 방장스님 친견
 ※ 각 회차별 당일코스이며 오전 7시 조계사 정문앞에서 출발합니다.
동참방법·접수안내
 △ 개인·단체동참 가능하며 대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제일은행 계좌(131-10-000570)로 통금금 2만원(입금하고 수미산여행사 국내사업부(732-0181~3)로 연락주시면 좌석 이 배정, 접수마감은 해당일 3일전.
 △책방 '여시아문(737-0695)'에서도 접수받으며 현대불교 편집국(722-4162)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원고지 30매...11월25일 마감
 이시대 불자들의 바른 신행지표를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하셔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수기 공모 요강
 △ 공모내용 : 생활수 신행이야기·부처님 기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투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수처 : 서울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 발표 : 현대불교 95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 유미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 메달)
 · 중년형회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분사 사장상 : 상장, 상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용모자전원 : 기념품 증정

고객과 함께, 자연과 함께

김호건설은 고객의 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건설은 건설시장의 수많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뢰받는 김호타운의 건립외에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지하공간 개발사업, 각종 환경 관련산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더 좋은 미래환경을 만들어 가는 김호건설 - 도시의 입체적 활용, 종합레저타운, 새로운 생활환경의 조성 등 21세기형 미래공간의 건설을 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김호건설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호건설

■ 건설 전부문 ISO 9001인증획득